

## 미국 산업위생학회 참관기

연세대의대 / 노재훈



2001년 6월 3일 동경행 12시 15분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2001 미국산업보건학회 (American Industrial Hygiene

Conference & Exposition: aihce)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거의 하루가 걸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뉴올리언즈에 도착하였다. 공항의 시계는 6월 3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었고 약간 무더운 날씨였다.

다음날 아침 여독이 남아서인지 그리 상쾌하지 않았지만 미시시피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하고 학회장소인 Ernest N. Morial Convention Center로 향했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의 노영만 교수, 임현우 교수, 한성대 박두용 교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지연 차장,

신통원 차장을 만날 수 있었다.

등록을 마치고 준비해 온 “Effects of ethanol and phenobarbital on hemoglobin adducts formation in rats exposed to benzidine and direct black 38”의 포스터를 붙이고 poster sessions을 들러 보았다. 올해에는 IAQ(Indoor Air Quality)와 management에 관한 주제가 눈에 많이 띄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직독식 장비들이 산업안전보건 전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첫째 날은 opening session을 시작으로 전체 30개 category 중 25개 category가 개최되었다. 오후에는 California 대학의 Dr. Quee Hee가 arranger로 “Biological monitoring/medical surveillance programs in academic and corporate workplace”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저녁에는 international reception에 참석하여 각국의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bioaerosols, 생물학적 모니터링, community environmental health & safety, 컴퓨터 응용, contaminant control, 인간공학, 환경, 노출평가전략, 실내공기오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일부 물질에 대해 법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장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농부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염, 실험실 보건과 안전, 소음, 위해성 평가, sampling and laboratory analysis 등에 대한 연제가 발표됐다. 그 중 관심 있게 들었던 연제는 실험실의 ISO 인증과 관련된 "Laboratory policy changes due to ISO standard 17025"의 토론회와 네덜란드의 Huijbers가 발표한 "Transfer of contaminants from surfaces to hand: pressure as determinant for skin adherence of a sticky contaminant during repeated hand-press contacts"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형광물질을 이용한 피부노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날에는 실내에서 진균류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 영세 사업자에서의 직업병 예방, 위해성 예방과 오염물질 관리, 개인보호구, 가스와 증기 측정, 비전리방사선의 최근 주제 등에 대한 연제 발표가 있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Should we or shouldn't we? A discussion of the merits of biological monitoring in the workplace"라는 명제 하에 Dr. Buckley (Johns Hopkins 대

학교) "생물학적 모니터링: 근로자의 건강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을 발표하였고, O'Malley는 "농약에 노출된 농부들의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일부 물질에 대해 법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장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농부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일의 학회 일정을 마친 저녁시간에는 뉴올리언의 중심인 프렌치쿼터를 관광하였으며 췌즈의 도시답게 거리마다 음악이 넘쳐났다.

4일간의 학회 일정을 마치고 7일 오후에 정상혁 교수(관동대 의과대학)가 있는 North Carolina 대학교와 Duke 대학교를 방문하였으며 가톨릭대학의 구정완 교수를 만났다. 특히 Duke 대학교의 고딕양식 건물과 성당은 인상적이었다.

9일에는 Chicago에 계시는 김태원 선생님 (radiologist)의 초청으로 St. Francis 병원을 방문하였고 Chicago를 마지막으로 미국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한국으로 출발하였다. 